

지역주도 여성정책 시대 연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라·제주 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출범식 참석 협력 다짐

전라·제주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에 따르면 지난 3일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전라·제주 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출범식과 기념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함께한 기관들은 지역 중심의 선도적 성평등 정책 모델 개발 및 여성정책 의제 발굴을 위해 협력하고, 중앙의 정부정책을 적극 견인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성평등이라며, 성평등 민주주의가 인구위기의 해법임을 강조했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기념포럼에서는 안전 전담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기관별 대표자들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유은경 여성정책연구소장, 광주여성가족재단 김영신 정책개발실장, 전남여성가족재단 정인경 정책연구소장,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강권오 연구위원은 지역별 인구소멸 및 여성가족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성인지 관점에서 인구 위기, 지방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에서 정현백 전 장관과 발표자들은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 가정과 일터에서 모두 작동하는 가부장제의 영향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가정 내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과 출산·양육에 대한 책임감, 돌봄 역할, 성별 임금격차와 유리천장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지난 3일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전라·제주 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출범식과 기념 포럼에 참석했다.

대안으로는, 청년 세대의 행복요건 강화, 생활인구 확대, 외국인 주민 유입 정책, 생활/관계 인구 확대, 인구창년인민국 신설, 인구영향 평가제도, 월세 1만원 주택 공급 등 혁신적인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 유은경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전북의 인구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여성정책으로 △노내 성평

등 전문관 직제 신설 △2030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 구축 △일-생활 균형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정희 원장은 "성인지적 지방소멸 대응 등 향후 지역 의제를 성평등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전북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책을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익산 브랜드 공연 '웨스트 & 이스트' 호평

3개 익산시립예술단 협업으로 수준 높은 작품 평 받아

익산시립예술단의 대표 공연인 '웨스트 앤 이스트(West & East)'가 올해 상반기 공연에서 관객들의 호평을 받으며 대중성과 관광 상품화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1000석의 티켓 매진과 함께 지난 4일 오후 3시와 저녁 7시에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 익산 브랜드 공연 '웨스트 앤 이스트(West & East)'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관객들은 "서동축제와 어우러진 이번 공연을 통해 백제왕도 익산시와 '서동설화'에 대해 더 잘 알게 됐고 자부심도 느꼈다"며 "특히 익산시립예술단의 3개 예술단이 혼신의 열정을 기울여 제작한 덕분에 수준 높은 작품을 볼 수 있어 행복했다"고 호평했다.

타 지역 관객들은 "백제 제30대 왕 '무왕(武王)'에 관한 이야기인 '서동 설화(善童說話)'

에 신화적 판타지를 추가해 흥미로운 공연이었다"며 "익산 브랜드를 절묘하게 결합해 잘 만들어 낸 공연이자 관광상품"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왕의 어머니가 용과 관계해 태어난 서동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 등을 노래·춤·연희가 어우러진 완성도 있는 가무악극으로 표현하며, 공연 2년 차를 맞아 익산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

작품은 시립합창단과 시립무용단, 시립풍물단 등 익산시립예술단의 3개 예술단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무용극을 기본으로 하는 오페라 연희 댄스컬로 구성되는 등 브랜드 공연에 걸맞은 수준 높은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익산시립풍물단 김익주 감독이 총예술감독으로 지휘하고 익산시립합창단 노기환 지휘자가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익산시립무용단 최석열 감독이 대본을 직접 쓰고 연출을 진행했다.

익산의 대표 브랜드 공연인 만큼 익산에서만 볼 수 있는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작품 제작에 노력했다.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토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서동'이라는 지역의 스토리를 활용해 대중성을 함께 확보해 나간다는 취지이다.

익산시는 상반기 공연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두 차례의 공연을 통해 브랜드 공연이 익산의 문화예술 자산으로 확고히 자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지원 익산예술의전당 관장은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후 관람객들의 호평이 이어져 올 하반기에 2회의 추가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시민들의 자긍심 회복,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남원 춘향제서 대동길놀이 펼쳐진다

11·12일 주민·특별 초대손님 댄스 행렬로 즐거움 선사

제외회 춘향제가 춘향무도회와 대동길놀이 등 전통과 현대의 멋진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볼거리와 함께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요천로 승월교 인근에서 펼쳐지는 대동길놀이에서는 남원의 대표적인 축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한복을 대여해 입고 춘향무도회에 참여할 수 있다.

대동길놀이는 고전소설 '춘향전'의 명장면들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거리 퍼레이드 공연으로, 남원의 23개 읍면동 주민들과 특별 초대손님들이 참여하는 끝없는 댄스 행렬로 꾸며지며, 오는 11일과 12일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남문로에서 상교동성당, 차없는거리를 지나 메인 무대까지 이어진



다. 축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한복을 입고 춘향제를 더욱 신명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올해 춘향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장동호 개인전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오는 12일까지 서울관에서 장동호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작가는 2012년부터 자작나무 합판을 재료로 한 독자적인 회화 작업, 일명 '나무 회화'를 선보이고 있다. 자작나무를 얇게 겹겹이 붙여 제작한 자작나무 합판에 음악과 양각의 방법으로 떠오른 심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그 위에 스테인과 아크릴 물감으로 색 작업을 하거나 천연바니쉬를 활용해 나무의 고유한 물성을 살린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이렇게 자작나무 합판 위에 작가의 오랜 수공이 더해져 완성된 화면은 인위적인 멋보다는 자연스럽고도 고아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그간 작가는 자신의 작업 세계를 '영의 미술(spiritual art)'라 명명해왔다. 그는 사물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의 세계 속 본질을 공감 가능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형상으로 빚어낸다.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세계의 삼라만상과 인간의 근원성을 고찰하며 떠오른 영적인 이

미지를 나타내고자 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작가는 하트 모양의 형상을 집요하게 탐구했는데, 이는 인류와 우주의 본질적 성질이자 원리인 사랑의 상징물과도 다르지 않다.

전시에서는 우주의 만물과 영의 속성들을 생성하고 유지하게 하는 '사랑의 원자(Atom of Love)'에 대한 예술적 탐구를 선보인다. 전시는 '사랑의 원자'의 생성과 사물의 형성, 인간의 형상, 그리고 분열이라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작가는 열두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생의 밝고 아름다운 면을 드러내는, 형이상학적 작업 세계의 지속적인 이행 지점"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한편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석사 학위, 일본 츠키바나대학 대학원에서 예술학(미술교육)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전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서 재직하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점심시간 활용 '풍물마당놀이 해피'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야외마당에서 점심시간대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신명 나는 풍물놀이 공연이 펼쳐진다.

지난 3일 전당에 따르면 합감마을문화생산지 협동조합(대표 김여명)과 점심시간을 활용한 전통문화 공연 '풍물마당놀이 해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8일 첫 선을 보이는 이번 공연은 전당 주변 직장인들과 주민들이 점심식사를 마친 후 잠깐의 시간에 전통문화를 함께 즐기며 향

유할 수 있도록 기획, 어거츠팀이 절로 나는 흥겨운 풍물놀이를 주제로 펼쳐진다.

공연은 합감마을 특유의 웃음과 해학을 숨겨 지만큼 커다란 강아지 '해피'에 녹여 △사자탈춤 △풍물연희 △기적놀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풍물공연 중 흥연희 사자탈 강아지 '해피'를 찾는 과정에서 관람객들의 호응과 참여를 유도해 관객과 공연 단원이 하나가 되는 몰입형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전주매일 캠페인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제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